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dy Cathexis and Fashion Orientation of Middle-aged Women in
Chonbuk Province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金 睿 淑

D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Yong Sook Kim

목 차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Reference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 the body cathex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women groups segmented by their fashion orientation.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Seven demographic variables, 9 self-images, body cathexis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Fashion orientation developed by Gutman and Mills was used. Data was collected from 369 Middle-aged women in Chonbuk Province.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ANOVA, cluste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body cathexis of the subjects were lower than capital city and increased according to age.

2. The self-image of the subjects were down-to-earth, modern, conventional, playing it safe, confident, stable, reserved and blending out into a crowd. The subjects with the self-image of being more sophisticated, confident, creative, stood out in a crowd, or complicated life style had higher body cathexis.

3. Whe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segmentations according to their fashion orientation by cluster analysis, the best suitable number of groups was seven.

The characteristics of seven groups were:

*Fashion negatives showed low levels of fashion leadership and fashion interest, and medium level of importance of being well-dressed, and high level of antifashion attitudes.

*Fashion neutrals showed medium levels of fashion leadership, fashion interest, and antifashion attitudes. *Fashion leaders showed high levels of fashion leadership, fashion interest, and importance of being well dressed, and low level of antifashion attitudes. *Fashion uninvolveds showed low levels of fashion leadership, fashion interest, and antifashion attitudes. *Fashion followers showed high levels of fashion interest and importance of being well dressed, but low levels of fashion leadership and antifashion attitudes. *Fashion independents showed a little bit high levels of fashion leadership, fashion interest, and importance of being well-dressed, but low level of antifashion attitudes. *Fashion rejectors showed low levels of fashion leadership, fashion interest, and importance of being well-dressed, but high level of antifashion attitudes.

4. The seven groups segmented by their fashion orient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s, employment status, and total monthly income. Fashion leaders and fashion independents had higher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income, and involved more women with jobs.

5. Fashion leaders had self-image of being most sophisticated modern, different, creative, sociable, stood out in a crowd, and complicated life style. Fashion rejectors had self-image of being most down-to-earth, traditional, conventional, stable, reserved, blend into a crowd, and simplified life style.

6.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among body cathexis, demographic variables and self-images in discriminating fashion orientation group differences were different-conventional, creative-stable, and employment status. Th discriminating power of above variables were high in discriminating fashion leaders, fashion uninvolveds, fashion followers, and fashion rejectors, but very low in discriminating fashion negatives, fashion neutrals, and fashion independents, and the total discriminating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32.25%.

I. 서론

요즘 소비자들의 의복구매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상품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소비자들의 유행상품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유행혁신자나 유행선도자에 관한 연구^{1) 2) 3) 4) 5)}이며 또 유행상품구매 행동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6) 7)}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는 유행상품의 시장세분화에 도움이 되며 또 그 상품의 구매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의복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8) 9) 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유행지향성에 따라 상품구매자 집단을 구분하고, 또 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

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 만족도

Secord와 Jourard¹¹⁾는 신체만족도란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갖는 만족도라고 하였으며 1953년에 신체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Horn¹²⁾은 신체 전체 또는 각 부분에 대한 만족·불만족감을 뜻하며 개인의 신체에 대한 태도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Ryan¹³⁾은 자아개념을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구분하였으며 신체적 자아는 개인이 인식한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신체에 대한 언급으로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모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다루었

다고 하였다.

Richard와 Hawthorne¹⁴⁾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측정된 결과 전공과 학년에 따라 유의차를 나타냈다. 농학계열 학생이 상경계열 학생보다, 1학년이 4학년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높았다. 대인관계가 많은 상경계열 학생이 외모에 더 신경을 쓰며 더 비판적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Kefgen과 Touchie-Specht¹⁵⁾의 저서에서 인용한 Jershiel는 외모와 신체능력은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신체상은 비교적 일찍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왜곡된 신체상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정확한 신체상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과 눈이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Dubler와 Gurel¹⁶⁾은 여성들은 감정이 우울해졌을때 자신의 외모나 의복에 대한 기분도 변화된다고 하였다. 우울한 경우에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된다고 하였다. 미국 여성의 경우 10명중 1명의 비율로 유방암으로 인하여 절제 수술이나 화학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인한 탈모증세나 유방 절제 상태는 여성의 외모만족도와 자존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의 경우 신체만족도와 자아만족도의 저하가 심했다.¹⁷⁾

우리나라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 유행에 대한 관심, 유행스타일 선호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이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⁸⁾ 성인 남성들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으며 다양한 신사복스타일을 폭넓게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또 신체만족도는 강화통제와 경제수준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내적통제가 강할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만족도가 높았다.⁹⁾ 여대생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으며 좀더 여성적인 브라우스를 착용하는 경향이 컸으며 비만한 경우에는 신체만족도가 낮았다.¹⁰⁾

2. 유행상품, 수용자의 집단 구분

Rogers¹¹⁾는 새로운 사상이나 상품을 수용하는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선구자층, 초기수용자층, 초기대

다수 수용자층, 후기대다수 수용자층, 무관심층으로 구분하였다.

Kim과 Schrank¹²⁾의 연구와 김민자와 김정호¹³⁾의 연구에서는 패션선구도와 패션오피니언리더쉽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패션선구도와 패션오피니언리더쉽이 모두 높은 이중역할자, 패션선구도는 높으나 패션오피니언리더쉽은 낮은 패션선구자, 패션선구도는 낮으나 패션오피니언리더쉽은 높은 오피니언리더, 패션선구도와 패션오피니언리더쉽이 모두 낮은 무관심자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Jenkins와 Dickdy⁷⁾는 의복구매의사결정 관련 요인중 외양과 실용성면에서 소비자를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외양에 관심이 높고 실용성에 관심이 낮은 유행옹호집단, 외양과 실용성에 관심이 모두 높은 심미주의자집단, 외양에는 관심이 낮고 실용성에 관심이 높은 실용주의자집단, 외양과 실용성에 관심이 모두 낮은 고품질추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원선과 강혜원⁶⁾의 연구에서는 의복변인에 의하여 의복구매자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혁신적 심미추구형 집단은 혁신적 유행스타일을 창조하고, 심미적인 면을 추구하며 특이한 소재와 화려한 색과 무늬를 좋아한다. 브랜드·신분상징인지형집단은 너무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색이나 무늬는 피하며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택한다. 전체의 과반수가 무관심형 집단에 속하였는데 이들은 의복흥미도가 낮으며 값싼 옷을 선호하며 유행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이화연⁴⁾의 연구에서는 혁신성과 의사선도력 점수에 따라 혁신적 전달자, 의사선도자, 추종자, 혁신자, 무관심자의 다섯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혁신성과 의사선도력이 모두 상에 속하는 집단을 유행혁신적전달자, 혁신성은 상에 속하나 의사선도력은 중·하에 속하는 집단을 유행혁신자, 혁신성은 중·하에 속하나 의사선도력이 상에 속하는 집단을 유행의사선도자, 혁신성과 의사선도력이 모두 중집단에 속하거나 한쪽은 중집단, 다른 한쪽은 하집단에 속하는 집단을 유행추종자, 혁신성과 의사선도력이 모두 하집단에 속하는 집단을 유행무관심자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신체만족도 검사—1953년 Secord와 Jourard⁷⁾가 개발한 Body Cathexis Scale의 46 문항중 극히 세부적인 3문항을 제외하고 43문항만 선택하여¹⁹⁾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5단계 평정법을 적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신뢰도가 측정된 결과 Cronbach α 는 0.633이었다.

2) 유행지향성 검사—1982년 Gutman과 Mills²⁰⁾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유행지향성은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 유행반감의 4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행선도력 관련 문항이 5개, 유행흥미도 관련문항이 5개, 의복중요도 관련문항이 4개, 유행반감 관련문항이 3개로 총 17문항이었으며, 내적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유행선도력(Cronbach α =.712), 유행흥미도(Cronbach α =.618), 의복중요도(Cronbach α =.743), 유행반감(Cronbach α =.518)이었다. 5단계 평정법이 적용되었으며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지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나 유행반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유행선도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일반 배경 변인과 심리 변인

일반 배경 변인으로 나이, 학력, 직업유무, 가정의 월별 총수입, 성장지, 키, 몸무게를 선정하였다. 나이는 중년기 여성 35~60세로 제한하였으며 가정의 월별 총수입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별평균소득이 중산층이 되도록 구분하였다.²¹⁾

심리변인으로 자아상은 Gutman과 mills²⁰⁾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서로 반대되는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되는 형용사 9쌍이 5단계 의미비분 척도로 되어 있으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의미미분척도의 왼쪽 서술어에 해당할 경우 1점을 배정하였고 오른쪽 서술어에 해당할 경우 5점이며 왼쪽이나 오른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점을 배정하였다.

2. 자료 수집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해서 설문지 문항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아 수정보완하였으며 본조사는 1989년 11월~12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전주시에 위치한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부모에게 설문지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369부만이 최종 통계 처리에 이용되었다.

3. 자료분석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을 계산하였으며, 분산분석, Cluster분석, 판별분석을 하였으며, SPSSX Program을 이용하였다.

4. 용어 정의

본 논문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 ◎유행지향성—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 유행반감의 4개 하위변인으로 되어 있다.
 - ① 유행선도력—새로운 의복스타일과 악세사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채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복유행에 관한 정보, 의견, 충고를 주고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② 유행흥미도—의복 유행에 흥미를 갖고 유행 정보에 밝으며 착용하는 의복이 유행변화를 따르는 정도.
 - ③ 의복중요도—의복이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의복에 금전과 시간을 소비하는 정도.
 - ④ 유행반감—유행하고 있는 의복을 착용하는데 반감을 갖으며 현재 유행하는 의복에 관계없이 의복을 착용하는 정도.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일반배경변인어 <표1>에 나타나 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배경

| 일반배경변인 | | 빈도(명) | 백분률(%) |
|------------|--------------|-------|--------|
| 나이 | 35 - 39세 | 129 | 35.0 |
| | 40 - 49세 | 199 | 53.9 |
| | 50 - 59세 | 41 | 11.1 |
| 학력 | 국민학교 졸업 | 55 | 14.9 |
| | 중학교 졸업 | 106 | 28.7 |
| | 고등학교 졸업 | 154 | 41.7 |
| | 대학교 졸업 | 54 | 14.6 |
| 취업여부 | 취업 | 117 | 31.7 |
| | 비취업 | 252 | 68.3 |
| 가정의 월별 총수입 | 40만원 미만 | 82 | 22.2 |
| | 41 - 60만원 | 159 | 43.1 |
| | 61 - 80만원 | 69 | 18.7 |
| | 81 - 100만원 | 40 | 10.8 |
| | 101만원 이상 | 19 | 5.1 |
| 성장지 | 대 도시 | 27 | 7.3 |
| | 중·소도시 | 190 | 51.5 |
| | 읍·면지역 | 152 | 41.2 |
| 키 | 150 Cm 미만 | 7 | 1.9 |
| | 151 - 155 Cm | 91 | 24.7 |
| | 156 - 160 Cm | 158 | 42.8 |
| | 161 - 165 Cm | 100 | 27.1 |
| | 166 Cm 이상 | 13 | 3.5 |
| 체중 | 45 Kg 미만 | 22 | 6.0 |
| | 46 - 50 Kg | 68 | 18.4 |
| | 51 - 55 Kg | 127 | 34.4 |
| | 56 - 60 Kg | 87 | 23.6 |
| | 61 - 65 Kg | 52 | 14.1 |
| | 66 - 70 Kg | 11 | 3.0 |
| | 71 Kg 이상 | 2 | 0.5 |
| 전 체 | | 369 | 100 |

2. 신체만족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전주시 거주중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 기술통계량이 〈표2〉에 나타나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는 평균 149.49로 본 연구에서와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던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보다 높았으며⁹⁾ 20대 미혼여성이나²⁰⁾ 여대생보다 높았다.¹⁰⁾ 또 미국의 중년기 여성보다 약간 높았다.¹¹⁾ Richard와 Hawthorne¹⁴⁾의 대인 관계가 많은 사람이 대인 관계가 적은 사람보다 더 비판적이라는 주장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대상자의 일반 배경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일반 배경 변인중 학력, 취업여부, 가정의 월별 총수입, 키, 체중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유의차는 없었고, 나이와 성장지에 따른 유의차만 나타났다. 앞서와 같은 결과로 성장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으며, 대도시에서 성장한 여성이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Mclean¹⁹⁾의 연구에서도 20~80대의 여성의 신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2〉 대상자의 신체만족도 기술통계량

| 기술통계량 | 평균 | 표준 편차 | 가능점수범위 | 실제점수범위 |
|-------|--------|-------|--------|--------|
| 신체만족도 | 149.49 | 16.55 | 43-215 | 83-196 |

〈표 3〉 대상자의 일반 배경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검증

| 일반 배경 변인 | 통계량 | 신체만족도 평균 | F 값 |
|----------|----------|-----------|-----------|
| 나이 | 35 - 39세 | 135.98 A | 2.9984* |
| | 40 - 49세 | 140.66 AB | |
| | 50 - 59세 | 142.71 B | |
| 성장지 | 대 도시 | 137.47 A | 7.6035*** |
| | 중,소도시 | 141.55 B | |
| | 읍,면지역 | 149.96 C | |

註 :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 P<.05 *** P<.005

3. 자아상

본 연구에서 심리변인으로 선정된 자아상의 기술 통계량은 〈표4〉와 같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들의 자아상은 순진하며, 현대적이고, 평범하고, 안전위주이고, 확신이 있으며 한결같고 조금 내성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보이지 않으며 생활방식은 단순하거나 다양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자아상과 비교해 볼때⁴⁾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더 순진하며 더 전통적이며 더 안전위주이며 확신이 없으며 내성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 편이었다.

4. 자아상에 따른 신체만족도

대상자의 심리변인인 9가지 자아상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전통적인-현대적인, 특이한-평범한, 안전위주의-모험적인, 내성적인-사교적인 자아상은 신체만족도에서 유의차가 없었고, 세련된-순진한, 확신이 있는-확신이 없는, 창조적인-한결같은, 군중 속에서 드러나보이는-군중 속에서 드러나 보이지않는, 생활 방식이 단순한-생활방식이 다양한 자아상은 신체만족도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중년기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확신이 강한 경우에도 확신이 없는 경우 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또 자아상이 창조

〈표 4〉 대상자의 자아상 기술 통계량

| 자아상 | 기술통계량 | 평균 | 표준편차 | 가능점수범위 | 실제점수범위 |
|----------------------------------|-------|------|------|--------|--------|
| 세련된 - 순진한 | | 3.38 | 0.94 | 1~5 | 1~5 |
| 전통적인 - 현대적인 | | 3.14 | 1.02 | | |
| 특이한 - 평범한 | | 3.93 | 1.00 | | |
| 안전위주의 - 모험적인 | | 2.01 | 1.09 | | |
| 확신이 있는 - 확신이 없는 | | 2.06 | 0.98 | | |
| 창조적인 - 한결같은 | | 3.13 | 1.12 | | |
| 내성적인 - 사교적인 | | 2.94 | 1.27 | | |
| 군중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 군중속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 | | 3.47 | 1.04 | | |
| 생활방식이 단순한 - 생활방식이 다양한 | | 2.99 | 1.14 | | |

〈표 5〉 자아상에 다른 신체만족도의 차이 검증

| 자아상 | 통계량 | 신체만족도의 평균 | F-ratio |
|---------------------|-----|-----------|-----------|
| 세련된 | | 146.80 A | 4.1214** |
| 약간 세련된 | | 146.09 A | |
| 중 간 | | 142.13 B | |
| 약간 순진한 | | 136.54 C | |
| 순진한 | | 136.21 C | |
| 확신이 있는 | | 143.66 A | 2.3490* |
| 확신이 약간 있는 | | 139.47 AB | |
| 중 간 | | 138.63 B | |
| 확신이 약간 없는 | | 138.68 B | |
| 확신이 없는 | | 130.26 C | |
| 창조적인 | | 150.25 A | 7.3727*** |
| 약간 창조적인 | | 145.08 AB | |
| 중 간 | | 140.10 BC | |
| 약간 한결같은 | | 135.22 C | |
| 한결같은 | | 135.93 C | |
| 군중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 | 147.29 A | 2.9950* |
| 군중속에서 조금 드러나 보이는 | | 142.95 B | |
| 중 간 | | 142.09 BC | |
| 군중속에서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는 | | 139.74 C | |
| 군중속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 | | 135.20 C | |
| 생활 방식이 단순한 | | 135.53 A | 7.1062*** |
| 생활방식이 약간 단순한 | | 135.18 A | |
| 중 간 | | 140.65 B | |
| 생활방식이 약간 다양한 | | 147.26 C | |
| 생활 방식이 다양한 | | 147.49 C | |

註 :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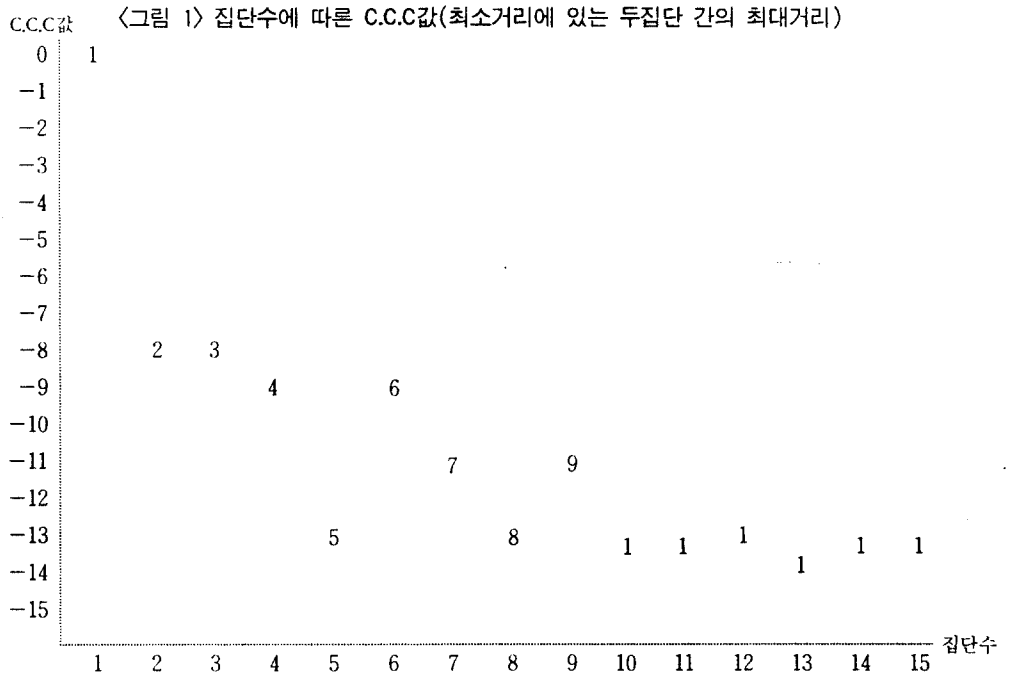
적인 경우 한결같은 경우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군중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자아상의 경우와 생활방식이 다양한 경우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Ford와 Drake²⁹⁾의 연구에 의하면 자만심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Lott³⁰⁾는 자신의 신체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특성에도 높은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5. 유행지향성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집단구분

유행지향성의 4개 하위변인인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 유행반감에 따라 적당한 집단의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C.C.C. 값을 추적한 결과는 <도

1>과 같다. 집단의 수가 1일때 C.C.C.값이 제일 높으나 대상자들의 유행지향성에 따른 집단 특성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며 집단수가 2와 3일때는 C.C.C.값이 똑같아 최적 집단수가 될수 없으며 집단수가 1에서 5로 증가됨에 따라 C.C.C.값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C.C.C.값이 A모양의 피크를 이루는 점의 집단수가 최적 집단수임을 감안하여³¹⁾ 6 또는 7을 선정할수 있는데 본 연구자가 Dendrogram을 살펴본 후 Guttman과 Mill³²⁾의 연구에서와 같이 최적집단수를 7로 정하였다.

유행지향성의 4개 하위 변인의 특성에 따라 중년기여성을 7집단으로 나누었을때 각 집단의 유행지향성 특성은 <표6>과 같다. 중년기 여성 369명을 유행지향성의 4개 하위 변인의 특성에 따라 전주시에서 거



주하는 중년기여성 369명을 7집단으로 나누었을때 제1집단은 유행선도력과 유행흥미도가 전체평균보다 낮으며 의복중요도는 보통이며 유행반감은 전체평균보다 높다. 대상자의 18.97%가 이 집단에 속하며 유행부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제2집단은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 의복반감 모두가 중간수준이며 대상자의 18.43%가 이 집단에 속하며 유행 중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제3집단은 유행선도력, 유행

흥미도, 의복중요도가 모두 높고 유행반감은 낮다. 대상자의 14.91%가 이 집단에 속하며 유행선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제4집단은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유행반감이 모두 낮으며 대상자의 13.55%가 이 집단에 속하며 유행무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제5집단은 유행선도집단의 특성과 비슷하나 유행선도력이 낮다. 대상자의 13.55%가 이 집단에 속하며 유행 추종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제6집단은 유행에 대한 관

〈표 6〉 각 집단별 유행 지향성 특성

| 집단 | 통계량 | 빈도(백분률) | 유행선도력의 평균 | 유행흥미도의 평균 | 의복중요도의 평균 | 유행반감의 평균 |
|---------|-----|-----------|-------------|-------------|------------|------------|
| Group 1 | | 70(18.97) | 11.24 | 10.60 | 9.33 | 9.23 |
| Group 2 | | 68(18.43) | 12.24 | 9.04 | 8.37 | 9.84 |
| Group 3 | | 55(14.91) | 17.38 | 14.84 | 12.98 | 8.62 |
| Group 4 | | 50(13.55) | 8.96 | 9.14 | 7.34 | 8.38 |
| Group 5 | | 50(13.55) | 12.96 | 10.50 | 12.36 | 8.24 |
| Group 6 | | 46(12.47) | 14.22 | 13.43 | 10.83 | 8.87 |
| Group 7 | | 30(8.13) | 8.30 | 6.90 | 7.90 | 11.50 |
| 전체 평균 | | | 12.40 | 10.98 | 9.91 | 9.08 |
| F-ratio | | | 165.8062*** | 108.7039*** | 76.7901*** | 19.3862*** |

*** P<.005

심이 많으나 유행반감이 낮다. 대상자의 12.47%가 이 집단에 속하며 유행독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제7집단은 유행지향성의 4개 하위변인이 모두 제3집단의 반대이며 제1집단과 다른 점은 의복중요도가 낮은 점이다. 대상자의 8.13%가 이 집단에 속하였으며 유행거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대상자의 일반배경 변인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중년기 여성 집단별 차이 검증은 한 결과는 <표7>과 같다. 대상자의 나이, 신장, 체중, 성장지, 신체만족도 등의 변인은 유행지향성에 따른 중년기 여성 집단간 유의차가 없었으나 학력, 직업유무, 가정의 월별 총수입에 따라 집단간 유의차가 있었다. 유행선도집단과 유행독립집단의 학력이 제일 높았고 유행추종집단과 유행거부집단의 학력이 제일 낮았다. 유행선도집단과 유행독립집단의 경우 취업여성의 수가 제일 많았고, 유행중도집단과 유행무관심집단의 경우 가정주부의 수가 제일 많았다. 유행선도집단과 유행독립집단이 가정의 월별총수입이 제일 많았고 유행추종집단과 유행중도집단의 가정의 월별총수입이 제일 적었다. Katz와 Lazarsteld²⁶⁾는 수입이 비교적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젊은 미혼녀가 유행에 대한 흥미가 비교적 높다고 하였으며 Baumgarten²⁷⁾도 젊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미혼녀가 유행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다고 하였다. Summers²⁸⁾의 연구에서도 의사선도자들은 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교육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또 Rogers¹⁸⁾는 초기채택자들이 후기채택자들 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교양이 있으며 추종자들은 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의사선도자들을 찾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김영숙과 김민자²⁹⁾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직업유무와 직업의 종류는 유행선도력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며 김민자와 김정호³⁰⁾의 연구에서도 유행선도력은 모든 사회경제 계층에 고르게 퍼져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반대이다.

중년기여성들의 자아상에 따른 유행선도력집단별 차이 검증결과는 <표8>과 같다. 9개의 자아상중 확신이 없는-확신이 있는은 집단간 유의차가 없었고 그 나머지 8개의 자아상은 집단간 유의차가 있었다. 유행부정집단은 순진하며 현대적이며 평범하며 안전위주이며 한결같고 군중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생활방식이 단순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유행중도집단은 순진하며 평범하며 안전위주이며 한결같고 내성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유행선도집단은 현대적이며 평범하며 안전위주이며 창조적이며 사교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보이며 생활방식이 다양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유행무관심집단은 순진하며 전통적이고 평범하며 안전위주이며 한결같고 내성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생활방식이 단순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유행추종집단은 순진하며 평범하며 안전위주이

〈표 7〉 중년기 여성의 일반배경 변인에 따른 집단별 차이검증

| | 학력의 평균 | | 직업유무의 평균 | | 가정의 월별총수입의 평균 | |
|-----------|-----------|---|----------|----|---------------|---|
| 유행 부정 집단 | 2.69 | A | 1.69 | AB | 2.33 | A |
| 유행 중도 집단 | 2.38 | B | 1.82 | A | 2.19 | A |
| 유행 선도 집단 | 2.87 | A | 1.53 | B | 2.76 | B |
| 유행 무관심 집단 | 2.40 | B | 1.74 | A | 2.16 | A |
| 유행 추종 집단 | 2.30 | B | 1.72 | A | 2.06 | A |
| 유행 독립 집단 | 2.87 | A | 1.54 | B | 2.63 | B |
| 유행 거부 집단 | 2.33 | B | 1.70 | AB | 2.20 | A |
| 전체 평균 | 2.56 | | 1.68 | | 2.34 | |
| F - ratio | 4.0079*** | | 3.0228** | | 3.0802** | |

註: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는 경우를 1로, 직업이 없는 경우를 2로 코딩하였으며,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결과임.

** P<.01

*** P<.001

〈표 8〉 중년기여성의 자아상에 따른 집단별 차이검증

| 자아상 집단 | 세련된- 순진한의 평균 | 전통적인- 현대적 인의 평등 | 특이한- 평범한의 평균 | 안전위주 의-모험 적인의 평균 | 창조적인 -한결같은 의 평균 | 내성적인 -사교적인 의 평균 | 군중속에서 드러나보 이는-군 중속에서 드러나지 않는의 평균 | 생활방식 이 단순한- 생활방식 이 다양한의 평균 |
|-----------|--------------------|--------------------------|--------------------|---------------------------|--------------------------|--------------------------|--|--|
| 유행부정 집단 | 3.23 AB | 3.20 AB | 3.91 A | 1.87 A | 3.01 A | 2.93 A | 3.40 A | 2.94 AB |
| 유행중도 집단 | 3.53 A | 3.03 A | 4.21 B | 2.03 AB | 2.40 A | 2.79 AB | 3.71 AB | 3.01 A |
| 유행선도 집단 | 2.89 B | 3.55 B | 3.25 C | 2.25 B | 2.36 B | 3.38 C | 2.87 C | 3.42 B |
| 유행무관심 집단 | 3.76 A | 2.80 A | 4.42 BB | 1.66 A | 3.28 A | 2.56 B | 3.82 B | 2.64 A |
| 유행추종 집단 | 3.36 AB | 3.18 AB | 3.70 A | 1.98 A | 3.48 A | 2.96 A | 3.34 A | 2.84 A |
| 유행독립 집단 | 3.15 B | 3.28 B | 3.70 A | 2.39 B | 2.89 B | 3.24 A | 3.33 A | 3.35 B |
| 유행거부 집단 | 4.00 C | 2.83 A | 4.53 B | 1.83 A | 3.70 A | 2.60 B | 4.00 B | 2.57 A |
| 전체 평균 | 3.38 | 3.14 | 3.93 | 2.01 | 3.13 | 2.94 | 3.47 | 2.99 |
| F - ratio | 7.8097*** | 3.3110** | 11.3284*** | 2.6653* | 8.6324*** | 2.8870** | 6.7995*** | 3.8764*** |

註 : 자아상의 왼쪽 설명에 가까울수록 평균값이 1에 가깝고, 오른쪽 설명에 가까울수록 평균값이 5에 가깝다.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결과임.

• P<.05

** P<.01

*** P<.001

며 사교적이고 군중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한결같고 생활방식이 단순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유행독립집단은 현대적이며 평범하며 안전위주이며 사교적이고 군중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생활방식이 단순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유행거부집단은 순진하며 평범하며 안전위주이며 한결같고 내성적이며 군중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생활방식이 단순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Guttman과 Mill²⁰⁾의 연구에서도 유행선도집단과 유행독립집단은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특이하고 모험적이고 확신이 있으며 창조적이고 사교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보이며 생활스타일이 다양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이 화연⁴⁾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6. 일반 배경변인, 자아상, 신체만족도의 유행지향성 판별력

본 연구에서 선정한 7개의 일반 배경변인과 9개의 자아상과 신체만족도의 유행지향성에 따른 집단별

판별력을 분석한결과는 〈표9〉와 같다. 제1함수의 정준상관계수가 .5305(P<.0000)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제2함수의 정준상관계수가 .2798(P<.7105)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1함수만으로 해석하면 자아상중 특이한-평범한($\beta=.4927$), 창조적인-한결같은($\beta=.3336$)와 직업유무($\beta=.2294$)는 유행지향성에 따른 대상자의 집단구분에 판별력이 큰 변인이었다.

각 집단별 집단중심치는 〈표10〉과 같다. 〈표9〉에 제시된 각 변인의 비표준화계수와 원점수를 곱한후 상수를 더하면 각 개인의 판별점수를 얻게된다. 이 판별점수를 〈표10〉에 제시된 집단중심치와 비교하여 가까운 집단으로 예측 판정하여 집단구분을 할 수 있게된다. 이때 판정된 집단구분을 예측집단이라 한다.

대상자 369명을 유행지향성에 따라 cluster 분석에 의하여 7집단으로 나누었을때 각 개인이 소속하게 되는 집단을 실제집단이라 하고 〈표10〉에 제시된 집단별 중심치로 판정한 집단을 예측집단이라 할때 본

〈표 9〉 일반배경변인, 자아상, 신체만족도의 유행지향성에 따른 집단판별력

| 정준 상관계수 | | 제 1 함수 | | 제 2 함수 | |
|---------|---------------------|----------------|-----------|----------|-----------|
| | | .5320(P=.0000) | | | |
| 변인 | | 표준화, 판별함수 | 비표준화 판별함수 | 표준화 판별함수 | 비표준화 판별함수 |
| | | 계수 | 계수 | 계수 | 계수 |
| 신체만족도 | | -.0992 | -.6015 | .0288 | .1747 |
| 일반배경변인 | 나 이 | -.0574 | -.8242 | .3812 | .5476 |
| | 학 력 | -.1358 | -.1518 | -.1938 | -.2166 |
| | 직업 유무 | .2294 | .5003 | .1898 | .4139 |
| | 가정의월별총 수입 | -.1477 | -.1373 | -.2682 | -.2493 |
| | 신 장 | -.0355 | -.4144 | -.0005 | -.5625 |
| | 체 중 | .1972 | .1620 | .1131 | .9293 |
| | 성 장 지 | -.0597 | -.9867 | .2082 | .3439 |
| 자아상 | 세련된-순진한 | .0827 | .9252 | -.2326 | -.2602 |
| | 전통적인-현대적인 | -.1135 | -.1138 | .2541 | .2502 |
| | 특이한-평범한 | .4927 | .5316 | -.4394 | -.4741 |
| | 안전위주의-모험적인 | -.1169 | -.1088 | -.1229 | -.1144 |
| | 확신이있는-확신이없는 | -.0414 | -.4197 | .0286 | .2896 |
| | 창조적인-한결같은 | .3336 | .3161 | .5922 | .5611 |
| | 내성적인-사교적인 | -.0185 | -.1483 | -.0681 | -.5454 |
| | 군중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 .1970 | .1987 | -.2623 | -.2646 |
| | 생활방식이 단순한-생활방식이 다양한 | -.1706 | -.1533 | .0630 | -.5666 |
| | 상 수 | | -2.1591 | | -1.1462 |

〈표 10〉 유행지향성에 따른 집단별 집단중심치

| 제 1 함수 | |
|---------|---------|
| 집단 | 집단 중심치 |
| 유행부정집단 | -.0871 |
| 유행중도집단 | .4406 |
| 유행선도집단 | -1.1441 |
| 유행무관심집단 | .6463 |
| 유행추종집단 | .0818 |
| 유행독립집단 | -.5199 |
| 유행거부집단 | .8858 |

연구에서 선정했던 일반배경변인, 자아상, 신체만족도 등으로 예측할수 있는 판별력은 〈표11〉과 같다. 본 논문에서 선정했던 여러 변인들은 유행선도집단(58.2%)과 유행무관심집단(36.0%), 유행추종집단(36.0%), 유행거부집단(43.3%)에 판별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유행부정집단은 유행선도집단으로 잘못 예측될 가능성이 21.4%나 되었으며 유행중도집단은 유행추종집단으로 잘못 예측될 가능성이 22.1%나 되었고, 유행독립집단은 유행선도집단으로 잘못 예측될 가능성이 30.3%나 되었다. 여러 변인들의 전체판별력은 32.25%이었다.

〈표 11〉 일반배경변인, 자아상, 신체만족도의 집단판별력

| 실제집단 | 예측집단 변도(백분율) | 유행부정 | 유행중도 | 유행선도 | 유행무관 | 유행추종 | 유행독립 | 유행거부 |
|-----------|-----------------|----------------|----------|----------|----------|----------|----------|----------|
| | | 집단 | 집단 | 집단 | 심집단 | 집단 | 집단 | 집단 |
| 유행 부정 집단 | | 13(18.6) | 8(11.4) | 15(21.4) | 9(12.9) | 13(18.6) | 7(10.0) | 5(7.1) |
| 유행 중도 집단 | | 6(8.8) | 15(22.1) | 5(7.4) | 10(14.7) | 15(22.1) | 6(8.8) | 11(16.2) |
| 유행 선도 집단 | | 5(9.1) | 1(1.8) | 32(58.2) | 1(1.8) | 7(12.7) | 5(9.1) | 4(7.3) |
| 유행 무관심집단 | | 5(10.0) | 5(10.0) | 3(6.0) | 18(36.0) | 2(4.0) | 5(10.0) | 12(24.0) |
| 유행 추종 집단 | | 4(8.0) | 5(10.0) | 6(12.0) | 4(8.0) | 18(36.0) | 4(8.0) | 9(18.0) |
| 유행 독립 집단 | | 4(8.7) | 6(13.0) | 14(30.4) | 6(13.0) | 3(6.5) | 10(21.7) | 3(6.5) |
| 유행 거부 집단 | | 3(10.0) | 3(10.0) | 00(0.0) | 4(13.3) | 4(13.3) | 3(10.0) | 13(43.3) |
| 전체(N=369) | | 전체 판별력 32.25 % | | | | | | |

V. 결론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는 149.49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대도시에서 성장한 여성보다 낮았다.

② 중년기 여성들의 자아상은 순진하며 현대적이며 평범하며 안전위주이며 확신이 있으며 한결같고 내성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의 자아상이 좀더 세련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확신이 강하거나 창조적이거나 군중 속에서 드러나 보이거나, 생활방식이 다양할 경우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③ 중년기 여성들의 유행지향성의 4개 하위변인인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 유행반감에 따라 C.C.C.법으로 집단을 나눌때 7개로 구분하는 것이 최적집단수이었으며 이들 집단은 ㉠ 유행부정집단은 유행선도력과 유행흥미도가 낮으며 의복중요도는 평균수준이며 유행반감은 높다. ㉡ 유행중도집단은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 유행반감이 평균수준이다. ㉢ 유행선도집단은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가 높고 유행반감은 낮다. ㉣ 유행무관심집단은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유행반감이 낮다. ㉤ 유행추종집단은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가 높으나 유행선도력과 유행반감이 낮다. ㉥ 유행독립집단은 유행선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가 약간 높으나 유행반감은 낮다. ㉦ 유행거부집단은 유행선

도력, 유행흥미도, 의복중요도가 낮고 유행반감은 높다.

④ 유행지향성에 따라 나누어진 중년기 여성집단은 학력, 직업유무, 총수입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 유행선도집단과 유행독립집단의 학력이 제일 높고 취업 여성의 수가 제일 많고 가정의 월별 총수입도 제일 높았다.

⑤ 유행선도집단의 자아상이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특이하며 창조적이며 사교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보이며 생활방식이 다양하였다. 유행거부집단의 자아상은 가장 순진하며 전통적이며 평범하며 한결같으며 내성적이며 군중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생활방식이 단순하였다.

⑥ 신체만족도, 일반배경변인, 자아상중 유행지향성에 따른 집단 판별에 영향이 가장 큰 변인은 특이한-평범한, 창조적인-한결같은, 직업유무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유행선도집단, 유행무관심집단, 유행추종집단, 유행거부집단에 대한 판별력은 높았으나 유행부정집단, 유행중도집단, 유행독립집단에 대한 판별력은 낮았고 전체 평균 판별력은 32.25%이었다.

【참고문헌】

- 1) Kim, M. & Schrank, H.L., "Fashion Leadership : A Two-Culture Study-Part I : Fashion Leadership among Korean College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 no.3, 1982, p227-234.
- 2) 김민자, 김정호, "패션리더십에 관한 연구(제1보)",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1호, 1983, p11-

- 22.
- 3) 김 민자, 김 정호,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제2보)”,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2호, 1983, p1-6.
 - 4) 이 화연, “유행선도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5) 김 영숙, 김 민자, “기혼녀의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 — 사회참여도, 대중전달매체이용도,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패션리더쉽”, 한국의류학회지, 제8권, 2호, 1984, p11-17.
 - 6) 원 선, 강 혜원, “의복 변인에 의한 시장세분화와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제12권, 3호, 1988, p309-318.
 - 7) Juekins, M.C. & L.E.Dickey, “Consumer Types Based on Evaluative Criteria Underlying Clothing Deci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4, no.3, 1976, p150-162.
 - 8) 이 영운, 강 혜원,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6권, 2호, 1982, p17-24.
 - 9) 고 애란,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만족과의 상관연구 — 의복수용, 신분상징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10) 이 회남, “여대생의 신체만족도 및 신체충실지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상지대논문집, 제6집, 1985, p387-407.
 - 11) Secord, P.F. & S.M. Jourard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17, No.5, p343-347.
 - 12) Horn, M.J. & L.M. Gurel,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p.135.
 - 13) Ryan, M.S.,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81.
 - 14) Richard, E.A. & R.E. Hawthorn,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3, no.3, 1971, p.190-194.
 - 15) Kefgen, M. & Toug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ed and Personal Appearance(2nd ed.), N.Y. : MacMillan Pub. Co., Inc., 1976, p.10.
 - 16) Dubler, M.L.J. & L.M. Gurel, “Depression : Relationships to Clothing and Appearance Self Concep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3, no.1, p21-26.
 - 17) Feather, B.I., S.B. Kaiser & M. Rucker, “Mastectomy and Related Treatments :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on Self Estee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7, no.2, p.127-139.
 - 18) Rogers, E., Diffusions of Innovations, N.Y. : The Free Press, 1962.
 - 19) Mclean, F.P. “The Process of Age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olothing Satisfaction.” Utah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1978.
 - 20) Gutman, J. & M.K. Mills, “Fashion Life Style, Self-Concept, Shopping Orientation, and Store Patronage :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Retailing, Vol.58, no.2, 1982, p.64-86.
 - 21) 경제기획원 조사부, 한국통계연감, 1989.
 - 22) 김 용숙, “20대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하여” 호남대논문집, 제4권, 1984, p. 573-585.
 - 23) Ford, I.M. & M.F. Drake,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1, no.2, 1982, p.189-196.
 - 24) Lott, I., “Self-Concepts and Related Adornment Behavior of Negro and White Adolescent Girls.” Michigan State Univ., Master’s Thesis, 1966.
 - 25) SAS Institute, Inc., SAS User’s Guide(1979 ed.), North Carolina, 1979.
 - 26) Katz, E. & P. Lazafeld, Personal Influence :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 N.Y. : The Free Press, 1955.
 - 27) Baumgarten, S. “The Innovative Communicator in the Diffusion Proces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2, 1975, P.12-18.
 - 28) Summers, J.O., “The Identity of Women’s Clothing Fashion Opinion Leade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7, 1970, P.178-185.